

유황곡

維皇曲

유황곡(維皇曲)

〈유황곡〉은 본래 세종 15년(1433) 당시 태조(太祖)의 신위(神位)를 모셨던 문소전(文昭殿) 제1실의 아현악(亞獻樂)으로 창제되었다. 고려가요〈풍입송(風入松)〉의 제25행~제46행의 선율을 발췌하여 만든 것으로, 총 22행으로 구성되었다. 가사는 순한문 가사로 되어 있으며, 악조는 청황중궁(黃鐘清宮) 평조(平調)이다.

이후 〈유황곡〉의 선율은 다양한 제향의 아현악으로 사용되었다. 성종(成宗) 당시에는 태조(太祖)뿐만 아니라 세종(世宗) · 세조(世祖) · 예종(睿宗)과 그들의 비(妃)인 왕후(王后)를 모신 혼전(魂殿)의 아현악으로도 그 선율을 연주하였다. 이 때의 악곡명은 〈유천곡(維天曲)〉 · 〈오황곡(於皇曲)〉 · 〈유상곡(維上曲)〉 · 〈유아곡(維我曲)〉 등으로서 가사만 다를 뿐 선율은 동일하다.

제례악으로서의 〈유황곡〉의 전승은 임진왜란으로 문소전이 폐지된 뒤 사라졌지만, 그 악장과 음악은 여러 문헌에 전하고 있다. 『악학궤범(樂學軌範)』(1493),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770) 「악고(樂考)」에는 문소전 아현악으로서의 〈유황곡〉 악장이 기록되어 있고, 『대악후보(大樂後譜)』(1759) 권2에는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숙종 이후 〈유황곡〉은 연향악으로 전승되었다. 『숙종기해진연의궤(肅宗己亥進宴儀軌)』(1719)부터 『영조갑자진연의궤(英祖甲子進宴儀軌)』(1744)에는 탕(湯)을 올리는 절차인 진탕례(進湯禮)에 〈유황곡〉을 연주했다고 전하며,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1795)에는 술을 올리는 절차인 진작례(進爵禮)를 행할 때 〈유황곡〉이 연주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유황곡〉과 가장 흡사한 모습은 1930년대 이왕직아악부에서 채보한 오선악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악보에 수록된 〈유황곡〉은 대금 · 당피리 · 해금 · 절고 · 편종 · 편경의 기악 편성으로 가사 없이 전한다.

南	△拍	林	林	潢] 南	南	潢	
林	南	仲	仲	南	仲	△拍	沖	付
仲	林	黃	△拍	△拍	△拍	潢	汰	
太	仲	△拍	南	潢	潢	南	△	
仲	太	黃	潢] 南	△	林	潢	
△拍	仲	林	林	林	汰	潢	沖	付
南	南	潢	林	△	仲	潢	汰	
林	仲	仲	黃	△	南	△拍	△拍	
仲	△拍	△拍	太	林	林	潢	潢	
太	林	南	仲	潢	△拍	南	沖	付
仲	潢	林	南	林	潢	林	汰	
南	仲	潢	林	△	△	仲	沖	付
仲	△	南	△拍	林	沖	太	潢	
△拍	林	△拍	太	南	汰	仲	△拍	
	仲	潢	仲	潢	潢	△拍	汰	
	林	南	林	△拍	南	南	潢	
	潢	林	仲	汰	△拍	林	南	
	南	仲	太	潢	潢	仲	△	
	△拍	太	△	南	南	太	汰	
	潢	仲	黃	潢	林	仲	潢	

유황곡 雜皇曲